

Translation Model	Text
Original	Hillalum's friend Nanni prodded him with an elbow, awestruck. "We're to climb that? To the top?"\n "Going up to dig. It seems... unnatural."\n The miners reached the central gate in the western wall, where another caravan was leaving. While they crowded forward into the narrow strip of shade provided by the wall, their foreman Beli shouted to the gatekeepers who stood atop the gate towers. "We are the miners summoned from the land of Elam."\n The gatekeepers were delighted. One called back, "You are the ones who are to dig through the vault of heaven?" "We are."
gpt-4o	힐랄룸의 친구 난니가 감탄한 표정으로 팔꿈치로 그를 부드럽게 찔렀다. "저걸 올라간다고? 꼭대기까지?" "천장을 뚫으러 올라간다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광부들은 서쪽 벽의 중앙 문에 도착했고, 또 다른 짐마차 행렬이 떠나고 있었다. 그들이 벽이 제공하는 좁은 그늘 속으로 밀려들어가자, 그들의 십장 벨리가 성문 위에 서 있는 문지기들에게 외쳤다. "우리는 엘람 땅에서 소환된 광부들입니다." 문지기들은 기뻐하며 말했다. 한 명이 응답했다. "너희가 천상의 천장을 뚫으려는 사람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claude-3-5-sonnet	힐랄룸의 친구 난니가 그를 팔꿈치로 찌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우리가 저걸 오른다고? 꼭대기까지?"\n "올라가서 봐야 한다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n 광부들이 서쪽 벽의 중앙 문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대열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벽이 만들어내는 좁은 그늘 속으로 밀려들어가는 동안, 그들의 감독관 벨리가 문루 위에 서 있는 문지기들에게 소리쳤다. "우리는 엘람 땅에서 부름받은 광부들입니다."\n 문지기들은 기뻐했다. 한 명이 되받아 외쳤다. "당신들이 하늘의 둥근 천장을 뚫을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claude-3-5-haiku	힐랄룸의 친구 난니가 놀란 듯 팔꿈치로 그를 찔렀다. "우리가 저걸 오르라는 거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봐낸다고 하더군. 참 부자연스러워 보이네." 광부들은 서쪽 성벽의 중앙 문에 도착했고, 다른 여행 행렬이 떠나고 있었다. 그들이 성벽이 만들어내는 좁은 그늘 속으로 밀려 들어갈 때, 그들의 반장 벨리는 문 탑 위에 서 있는 문지기들에게 소리쳤다. "우리는 엘람 땅에서 불려온 광부들입니다." 문지기들은 기뻐했다. 그중 한 명이 되받아쳤다. "하늘의 궁창을 뚫을 자들이군요?" "그렇습니다."
gpt-4o-mini	힐랄룸의 친구 난니가 그를 감동받은 듯 팔꿈치로 쿡 찔렀다. "우리가 저기 올라가야 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봐야 해. 줌... 비자연스럽게 느껴져." 광부들은 서쪽 벽의 중앙 게이트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대 caravan이 떠나고 있었다. 그들이 벽이 제공하는 좁은 그늘로 몰려들자, 감독인 벨리가 게이트 타워에 서 있는 문지기들에게 소리쳤다. "우리는 엘람 땅에서 소환된 광부입니다." 문지기들은 기뻐하며 한 명이 대답했다. "당신들이 하늘의 금고를 뚫을 사람들인가요?" "우니다."
claude-3-haiku	힐라룸의 친구 나니가 팔꿈치로 그를 쿡 찔렀다. 경외감에 사로잡힌 목소리로 말했다. "저걸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위로 올라가 터널을 뚫을 거야. 자연스럽지 않은 일 같은데." 광부들이 서쪽 성벽 중앙의 문에 도착했을 때 다른 행렬이 막 떠나고 있었다. 그들이 성벽이 만들어내는 좁은 그늘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동안, 현장 관리자 벨리가 성문 위에 서있는 문지기들에게 소리쳤다. "우리는 엘람 지방에서 소집된 광부들이요." 문지기들은 기쁨에 차 있었다. 한 명이 답했다. "당신들이 바로 하늘의 저장소를 뚫어야 할 사람들인가?" "그렇습니다."
Google Translate	Hillalum의 친구 Nanni는 경외감을 느끼며 팔꿈치로 그를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올라가나요? 정상까지?"\n "파려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n 광부들은 또 다른 대상이 떠나고 있는 서쪽 벽의 중앙 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성벽 옆의 좁은 그늘 안으로 모여들고 있는 동안, 그들의 감독 벨리는 성문 탑 꼭대기에 서 있는 문지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엘람 땅에서 소환된 광부입니다."\n 문지기들은 기뻐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의 궁창을 파낼 자들이 바로 당신들입니까?"라고 물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gpt-3.5-turbo	힐러럼의 친구 난니가 놀라움에 팔꿈치로 힐러럼을 쿡쿡 찔렀다. "저 위로 올라갈 건가? 정상까지?" "파기 위해 올라가는 모양이네요. 이상하네요."\n 광부들은 서쪽 벽 가운데의 중앙 문까지 이르렀을 때 다른 부하도 떠나는 다른 단원이 있었다. 벽이 제공한 좁은 그늘 지대로 쏠려 들어갈 때, 요리채를 든 병사인 벨리가 문둥이 가지고 있는 문에 주소처리 하였다. "우리는 에람 땅에서 부릉들 기다리게 불렀습니다."\n 문장들은 기뻐다. 한 사람은 다시 소리쳤다. "너희들은 하늘 천고를 뚫어(파기)나가려는 사람들이냐?" "네, 우리입니다."
Human	친구인 난니가 경외심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힐라룸을 쿡쿡 찔렀다.\n "저기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꼭대기까지?"\n "파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난 뭔가 부자연스러운 기분이 들어."\n 광부들은 서쪽 성벽에 난 중앙 성문에 도달했다. 다른 대상이 막 떠나려는 참이었다. 일행이 성벽이 떨어뜨리는 그림자가 만들어 낸 좁은 응달 안으로 몰려들었을 때 광부들의 직장(長)인 벨리는 성문 위에 서 있는 문지기들을 향해 소리쳤다.\n "우린 엘람의 땅에서 부름을 받고 온 광부들이요."\n 그러자 문지기들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물었다.\n "하늘의 천장을 파고 들어갈 그 광부들인가?"\n "그렇소."